

누가 가장 큰가? (눅75)

성경말씀: 눅22:24-38

3년 반 공생애 완수, 구약의 유월절을 행하시며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바꿈, 새 상속 언약을 주심(20)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십자가 처형, 심지어 12중에 배반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심(21-22)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요, 또 참 사람이시다. 사람으로서 내일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는가?

무슨 잘못을 했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선포, 메시아 사명 완수, 완고한 백성과 지도자, 제자 배반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다(24). <누가 가장 큰가?>(24)

크게 되고자 하는 죄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다. 이것은 항상 제자들의 관심사.

1. 마18:1-5; 막9:33-37; 눅9:46-48,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18:4)

2.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왕국에서 왼쪽 오른쪽(마20:20-28)

이런 자리는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나머지 10명이 분개함(24-28).

오늘의 분쟁은 누가 배반할까(23) 말하다가 나옴, 어쩌면 유월절 만찬에서 자리 배치

이들은 예수님이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 뒤에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

3년 반을 따라 다녔으나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역 목적 이해 못함, 우리는 어떤가?

주님의 설명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25)

특히 로마 사람들은 합법적 불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은 그리하면 안 된다(25). 세상 사람들이 표준이 되면 안 된다.

요즘 정치권을 보라. 대통령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난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의 위대한 자, 주님처럼 되는 자: 섬기는 자(26-27), 막10:45

섬기는 종은 누가 으뜸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는다. 오직 주인을 섬길 뿐이다.

목사, 집사, 인도자, 주방, 주차, 교사, 사모, 지휘, 반주, 다 주님을 섬길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명예와 인정을 얻기 위해 경쟁하며 싸우지 않는다.

현대 교회들의 문제: 우리 교회 최고, 내가 그 중에 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자”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 원하는 분들: 교회의 믿음과 철학을 이해하고 온 가족이 섬기면 자동으로

리더가 된다. 목사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 섬김

이런 사람들의 문제

마귀의 노리개가 된다(31). 체로 겨를 까부른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너희(You)

주님의 위로(32): 이러면 믿음이 쇠한다. 그래서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성령님의 신음(롬8:26)

그 이유: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에 항상 함께한 자들(28): 매우 중요하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높이면 믿음이 약해진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 때에 내가 강하니라(고후12:10).

침례자 요한의 고백(요3:26-30):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의 침례를 주고 메시아의 길을 닦음

제자들이 생겨남,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몰려감, 그래서 불만

그러자 요한의 대답(27): 하늘에서 주셔야 한다. 나의 기쁨(29), 요한의 말(30)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시75:5-7).

심지어 국가의 왕이나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롬13:1-2).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의 의무: 바른 사람을 뽑는 것

창조물의 가장 큰 죄: 교만

마귀(사14):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지극히 높으신 분보다 더 높게 되겠다. 타락

아담(창3): 신들과 같이 된다. 속아 넘어가 타락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주님이 사명을 주심(32): 깨닫고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영어로 converted로 되어 있다. 회심한 후에도 해서 '구원받으면'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설교자가 되었다.

무엇으로 강하게 하는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벰전5:1-6).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는 호언장담(33), “나를 믿어라”,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아내가 늘 하는 말, 겸손히 살아라. 내가 늘 호언장담, 그리고는 실수한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모른다.

모세를 보라.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민12:3), 그런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민20). 반석에게 말하라. 두 번 침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 그러나 그것을 믿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34)

우리는 어떤 면이 강한가? 바로 그 강점에서 실수하기 쉽다. 말조심